

새국어생활과 어문 규범 논의

이선웅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국어 어문 규범은 우리나라 국어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어 어문 규범의 기능은 통일의 기능, 우월의 기능, 준거의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¹⁾ 이러한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표준어를 사용하고 맞춤법을 잘 지키는 것을 국어 실력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기도 한다. 따라서 국어 정책을 담당하는 국립국어원이 발간하는 《새국어생활》²⁾ 창간 20주년을 기념하여 《새국어생활》과 그 전신인 《국어생활》에 실린 어문 규범 관련 논문들을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³⁾

- 1) 이 세 가지는 이익섭(1998:88-92)에서 언급한 표준어의 기능으로서 어문 규범의 기능으로 규정해도 무리가 없다. 통일의 기능은 국민의 언어·문자 생활을 통일해 준다는 뜻이고, 우월의 기능은 표준적인 교육을 받은 것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어 준다는 뜻이며, 준거의 기능은 절제 있는 언어·문자 생활을 유도하여 준범 의식을 길러 준다는 뜻이다.
- 2) 국립국어원(2004)의 전신은 국립국어연구원(1991~2004)이고 그 전신은 국어연구소(1984~1991)이다. 《새국어생활》(1991~현재)의 전신은 《국어생활》(1984~1990)이다.

어문 규범 관련 논문들의 내용을 검토하는 데에는 몇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시기별로 고찰할 수 있다. 국어연구소 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이 시행되기 이전과 시행된 이후에 걸쳐 있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시행되기 이전이다. 국립국어연구원 시기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은 시행된 이후이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시행되기 이전과 시행된 이후에 걸쳐 있다. 국립국어원 시기는 모든 현행 어문 규정이 고시된 이후이다. 특정 어문 규정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시행되기 전과 시행된 후가 사뭇 다르기 마련이다. 시행되기 전에는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검토가 우세하지만, 시행된 후에는 어문 규정 내용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는 논의가 우세하다.

그러나 시기별 고찰은 학술적으로는 의의가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간명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어문 규정별로 고찰하도록 한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차례대로 살핀 후,⁴⁾ 《(새)국어생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표준 화법까지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2. 한글 맞춤법

(1988년 1월 19일 고시, 1989년 3월 1일 시행)

유목상(1988)은 현행 한글 맞춤법이 고시된 직후 그것을 해설한 글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한글 맞춤법으로 바꾸면서 개정한 내용을 불필요한 규정의 정리, 미비점 보완, 현실에 맞추어 고친 사항으로 유형화하여 해설하였다. 맞춤법 부분에서는 규정의 문제점을 두 가지 언급하였다. 첫째, ‘매, 폐, 헤’와 같은 한자음은 현실 발음이라고 하기 어려우니 현

3) 앞으로 《국어생활》과 《새국어생활》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새)국어생활》로 표기한다.

4) 《(새)국어생활》에는 어문 규범 분야의 논문이 가장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 논문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실 발음에 맞춘 맞춤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가듯, 간/가는/갈 듯(하다)’에서 ‘듯’은 어떤 경우에도 앞의 말과 끊어 읽지 않기 때문에 어미 혹은 어미의 일부로 보아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한자의 글자 형태에 대한 직관에 어긋난 주장이므로⁵⁾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후자는 지금도 여러 논저에서 주장되고 있는 내용이다. 실제로 ‘가는 듯하다’는 호흡 단위 때문에 ‘가는듯 하다’와 같은 띄어쓰기 오류가 많이 발생하곤 한다.

한글은 음소 문자이지만, 모아쓰기라는 특수한 문자 운용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정작 모아쓰기의 장단점을 분석한 글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익섭(1985)는 모아쓰기의 장점을 부각한 거의 유일한 글로서 모아쓰기보다 풀어쓰기가 표의성(表意性)을 더욱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한 최현배(1949)가 매우 박약한 논리에 근거하였음을 언급하고 한글은 모아쓰기를 함으로써 맞춤법의 표의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정수(1989)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풀어쓰기가 더 쓸모가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한글 풀어쓰기(가령 ‘한글’을 ‘한 글’로 적는 것)는 현행 한글 맞춤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혁명적인 것이어서 과학적으로 그 효용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병희(1988)는 현행 한글 맞춤법에 대한 글은 아니지만 한글 맞춤법의 역사를 설명한 글이다. 15세기 한글 창제 직후의 《훈민정음》 해례본 및 한글 표기 문헌과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근대 국어의 맞춤법까지 간략하지만 요령 있게 설명하였다. 국어 표기법의 역사는 《국어생활》 9호(1987년 여름호)에 특집으로도 매우 상세히 다루어져 있다. 그곳에 실린 글 중 현행

5) 송기중(1992)에서는 국어 화자들이 어떤 글자를 보았을 때 그것이 한자음 표기의 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직관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가령 ‘드 먼 칼’을 보고서 그것들이 어떤 한자를 표기한 글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글 맞춤법과 관련이 있는 남광우(1987)를 살펴보기로 한다. 거기에서는 현행 맞춤법이 고시되기 전의 맞춤법, 즉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고찰하였는데, 논의의 핵심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지나치게 어법과 어원에 집착하여 음소 문자인 한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즉, 표의성(表意性)보다는 표음성(表音性)을 위주로 한 맞춤법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현행 한글 맞춤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글 쓰는 이와 글 읽는 이의 수(數)를 고려할 때 쓰기 쉬운 맞춤법보다는 읽기 쉬운 맞춤법이 더 좋은 것임은 이미 이익섭(1992)의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발음(소리)을 위주로 한다면 쓰기가 쉽다. 소리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이다. 가령 ‘꽃이, 꽃만, 꽃과’를 그 소리대로 ‘꼬치, 쏬만, 쏬파로’ 쓰면 된다. 그러나 의미(뜻)를 위주로 한다면 읽기가 쉽다. 예컨대 언제나 ‘꽃’이라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으면 시각적으로 금세 그 뜻이 파악되어 읽기가 쉽다.

다만,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그만큼’과 ‘클 만큼 (컸다)’에서 ‘만큼’이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앞에 붙여 쓰고 하나는 앞과 띄어 쓰는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남광우(1987)의 주장은 현재에도 꽤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다.⁵⁾

띄어쓰기는 현행 어문 규정에서 양적으로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일반 국민에게 가장 어려운 어문 규범이다. 띄어쓰기는 아무리 쉽게 만들려고 해도 일반화된 규칙을 완벽히 제시하기 어렵다. 다만 현행 띄어쓰기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논의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띄어쓰기를 집중적으로 다룬 《새국어생활》 제12권 제1호(2002년 봄호)는 가치가 있다.

이익섭(2002)은 현행 단어별 띄어쓰기 규정은 허용의 폭이 좁아 지나

5) ‘대로, 뿐’도 이와 같은 띄어쓰기 원칙이 적용된다. 가령, ‘마음대로, 가는 대로’와 같이 쓴다.

치게 많이 띄어 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자주 쓰이거나 전문적 의미로 굳어진 말들에 과감하게 단어의 자격을 부여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가령 전자의 경우에는 보조 용언 구성 ‘가 버리다’를 ‘가버리다’로 쓰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열개’를 ‘열개’로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은 것을, 후자의 경우에는 ‘고유 명사’와 같은 말을 단어로 처리하지 않은 것을 예로 들었다. 정희창(2002)은 현행 맞춤법에서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를 요령 있게 정리한 것이고, 시정곤(2002)은 명사 연결체, 가령 ‘품질 관리 공정’과 같은 말의 띄어쓰기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허철구(2002)는 법률 문장의 띄어쓰기를 다루었고 여규병(2002)은 신문에서의 띄어쓰기를 다루었는데, 둘 다 과도한 붙여 쓰기가 문제가 되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희창(2002), 허철구(2002)를 제외한 모든 글이 띄어쓰기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허용의 폭을 넓히도록 규정이나 사전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전을 언급한 이유는 띄어쓰기가 국어사전에서의 단어성 판별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띄어쓰기가 아니더라도 어문 규정과 사전 편찬은 관계가 매우 깊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어문 규정이 발효되면 그 내용에 맞추어 모든 국어사전도 일관되게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의 개정 속도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게 마련이어서 사전마다 서로 다른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은정(1990)은 8개의 기존 사전이 어형, 긴소리, 한자어, 구조 분석(붙임표), 표기, 외래어 표기 면에서 상이한 처리를 하고 있음을 예시하여 국어사전의 규범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한글 맞춤법에서 간과되는 것 중 하나는 자모의 배열 순서이다. 자모 배열은 옛 문헌인 《훈민정음》, 《훈몽자회》에서와 현재의 사전들에서 서로 다르며 북한의 사전에서와 남한의 사전에서도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학문적 고찰도 필요하다 할 것인데, 전광현(1989)은 이에

대한 매우 드문 연구이다. 전광현(1989)은 문자론적 기준과 음운론적 기준, 전통적 관습성, 교육적·실용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모 배열 순서를 결정하여야 함을 피력하였다. 또한 한글 맞춤법과 국어사전의 자모 배열 순서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없고 고어 사전과 현대어 사전의 자모 배열 순서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없음을 주장한 후, 결론적으로 현대어 맞춤법, 현대어 사전, 고어 맞춤법, 고어 사전의 자모 배열 순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실려 있는 문장 부호이다. 한국어의 문자 언어에서 문장 부호는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적어도 한글 맞춤법 규정을 보면 그리 후한 평가를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규정 자체도 많지 않고 현실성도 떨어지며 예도 소략하기 짝이 없다. 규정에 대한 해설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⁷⁾ 그런 점에서 《새국어생활》 제12권 제4호(2002년 겨울호)에서 문장 부호를 기획 특집 주제로 삼은 것은 적절하다 할 것이다.

이익섭(2002)은 통론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영어에서 치밀하게 규정된 문장 부호 사용법과 대비하여 현행 문장 부호의 문제점을 실례를 들어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이런 허술한 규정으로 이만큼 문자 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따름’이라고 하면서 현실에도 맞고 범언어적 통용성도 좋은 문장 부호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이승재(2002)는 우리나라 옛 문헌에 쓰인 문장 부호를 고찰한 글이고 양명희(2002)는 문장 부호의 사용 실태를 교과서를 중심으로 꼼꼼히 살핀 글이다. 임동훈(2002)은 현행 문장 부호의 미비점을 풍부한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글이고 전수태(2002)는 남한과 북한의 문장 부호 규정을 비교·대조한 글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문장 부호는 반드시 보완

7) 필자는 교과서의 어문 규범 심의·감수를 자주 하는 편인데, 문장 부호의 쓰임이 다채롭기 이를 데 없음을 자주 경험하였다. 그것들을 모두 현행 어문 규정에 맞추어 억지로 축소·조정하도록 할 때에는 심리적 갈등까지 겪을 정도였다. 규정의 대폭 보완이 시급하다.

해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문장 부호는 독립성이 강해 한글 맞춤법의 근간을 해치지도 않는다.

임동훈(2002)에서도 ‘어문 규정은 학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의 언중이 이를 따르고 있다면 바꾸지 않는 쪽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문 규정이 문자 생활의 지침이 되지 못하거나 다수의 언중들에 의해 무시되는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다. 이때에는 어문 규정을 개정하는 쪽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덜 들이고 불편을 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규정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3. 표준어 규정

(1988년 1월 19일 고시, 1989년 3월 1일 시행)

이용백(1988)은 현행 표준어 규정이 고시된 직후 그것을 해설한 글이다. 표준어에 대한 의식과 그 역사를 간단히 언급한 후, 표준어 규정의 전체 체계 및 세부 내용 중의 일부를 표준 발음법까지 포함하여 해설하였다. 글의 성격 때문이기는 하지만 비판적 고찰이 전혀 없음은 아무래도 아쉽다.

표준어 규정은 규정 자체보다는 사정(査定)된 어휘가 더 중요하다. 곧 표준어 규정은 개별 단어들에 대한 것이므로 규정의 일반성이 어떻게 단어에 구현되는지가 최종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표준어 규정 마련 못지않게 지속적인 표준어 심의 및 사정 작업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김주필(1990)은 ‘표준어 모음’의 심의 경위를 설명하고 ‘표준어 모음’의 전체 내용을 해설한 글이다. 한편 김희진(1990)은 표준어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한 글이다. ‘1’ 모음 역행 동화, ‘-장이’와 ‘-쟁이’, ‘수’와 ‘숫’, 모음 조화 문제가 다루어져 있다.

맞춤법이 한글 창제 직후부터 문제가 되어 온 것이라면 표준어는 20세

기에 와서야 명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익섭(1988)은 국어 표준어 형성의 역사를 고찰한 글이다. 거기에서는 한글 창제 직후에도 표준어에 대한 의식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1912년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1936년의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1957년 완간된 '큰사전'을 통해 국어 표준어가 형성되어 왔음을 간략히 설명하고 현행 표준어 규정의 사전(事前) 작업이라고 할 만한 1970년 이후의 표준어 사정 작업을 소개하였다. 그 내용에 대한 비판은 곧 현행 표준어 규정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령 '수놈'을 표준어로 정한 것은 잘못이고 '-장이/쟁이' 선택의 기준으로서 기술 보유 여부를 내세워 '점장이/점쟁이'와 같은 주관적 해석의 혼란을 야기한 것도 잘못이라고 하였다.⁸⁾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 규정 속에 포함된 것인데, 일반적으로 맞춤법, 표준어보다는 관심을 덜 받고 있다. 그러므로 《새국어생활》 제3권 제1호(1993년 봄호)에서 표준 발음을 포함한 한국어 발음 전반을 살펴본 글들은 특별히 가치 있다고 할 것이다. 표준 발음과 기타 방언의 발음을 아울러서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발음, 장단음의 구별을 설명한 글과 표준 발음법과 북한의 문화어 발음법 규정을 비교·대조한 글 등이 실려 있다.⁹⁾ 특이한 것은 어문 규정에 없는 억양에 대한 글(임흥빈 1993)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억양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¹⁰⁾ 다음 개정

8) 지금은 「표준국어대사전」이 편찬되어 있으므로 거기에서 표준어로 올린 것이 표준어로 인정받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점쟁이'를 표준어로 올렸는데, 그것은 기술을 수공업적인 기술로 한정하여 주관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둘째 비판은 현재로서는 그 의의가 줄었다고 할 수 있다.

9) 현행 표준어 규정의 표준 발음법 중 중요한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해설한 글은 권인한(2000)이다.

10) 억양은 음성 언어에서의 문장 부호라고 할 수 있다. 문자 언어에서는 문장 부호가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그 존재를 인정받고 있는 반면 음성 언어에서는 억양이 규정의 한 줄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문장 부호만큼 억양을 가시적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할 표준어 규정에서는 억양 관련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볼 때, 임흥빈(1993)과 같은 글들이 많이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어와 표준 발음을 완벽히 준수하며 사는 사람은 현대의 교양 있는 서울 사람 중에서도 거의 없다시피 할 것인데 그런 점에서 송철의(1996)는 공감이가 가는 에세이이다. 일상 구어에서 ‘꽃을’을 [꼬슬]로, ‘땀다’를 [땨따]로, 조사 ‘도’와 어미 ‘-고’를 각각 [두], [구]로, ‘삼촌’을 [삼춘]으로, ‘네가’를 [니가]로 말하는 필자 자신의 사례를 들었다. 개개인의 의식적 노력, 학교에서의 말하기 교육을 강조하고 표준어와 표준 발음도 맞춤법과 같은 어문 규범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4. 외래어 표기법(1986년 1월 7일 고시)

일반 국민은 외래어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다. 어떤 표현을 일부러 외래어¹¹⁾로 하려고 혹은 안 하려고 하는가 하면 평소 외래어를 흔히 쓰면서도 한글날 때쯤 되면 우리말을 아끼고 자주 쓰자는 생각을 갖기도 하는 등 외래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새)국어생활》에서 외래어가 자주 다루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집으로 다루어진 것만 해도 모두 다섯 번이고(1985년 여름, 1996년 겨울, 1998년 여름, 2004년 여름, 2008년 겨울) 작은 글들도 많이 발표되었다. 1985년 여름호, 1998년 여름호, 2004년 여름호는 어문 규정으로서의 외래어 표기법을 고찰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두 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1996년 겨울호)에는 외래어의 개념을 살

11) 외래어는 일반적으로 국어에 동화된 말만을 가리키지만, 국어 문맥에 쓰인 외국어 단어를 가리키는 넓은 의미로 정의(임흥빈 1996)되기도 한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외래어보다는 넓은 의미에서의 외래어(곧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외국어’)를 포괄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외래어’를 넓은 개념으로 썼다.

펴보고 외래어 표기의 역사를 고대 차자 표기에서부터 현행 외래어 표기법까지 면밀하게 고찰한 임흥빈(1996),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 및 실례에 대한 심층적인 해설을 베풀고 있는 임동준(1996), 현행 외래어 표기법 중 일부가 자연스러운 현실 발음에 위배되는 점을 실례를 들어 지적한 김상준(1996), 남한과 북한의 외래어 표기법, 국어사전, 국어 교과서를 통해 외래어 표기 용례를 비교·대조한 김희진(1996), 일본어 표기법에 대하여 규정에서의 불비한 점과 원칙과 실례의 상충을 지적한 강인선(1996),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유만근(1996)과 신형욱(1996),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비판을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김세중(1996)이 실려 있다. 김상준(1996), 유만근(1996), 신형욱(1996)에서는 공통적으로 외래어 표기에서 된소리 표기로 쌍자음을 쓰지 않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해묵은 비판으로서 《새국어생활》 제18권 제4호(2008년 겨울호)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미리 언급하자면 거기에 실린 김슬옹(2008)도 외래어 표기법에서의 된소리 표기를 쌍자음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새국어생활》 제18권 제4호를 살펴보기로 한다. 엄익상(2008)은 중국어 표기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는 중국어 표기법이 음절 수가 짧고 표현이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ㄹ, ㄷ’을 제외한 된소리 표기를 인정하지 않는 점, 활음 [ɿ]가 ‘ㅈ, ㅊ, ㅌ’과 어울릴 때 그 음을 표기하지 않는 점¹²⁾, 음소 표기에서의 비일관성 등을 비판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한자음을 중심으로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을 진단한 최경봉(2008)은 동양의 인명, 지명에 대해 원음 표기와 한국 한자음 표기를 모두 허용하고 한자를 병기(併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의 된소리 표기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는 박창원(2008)은 보수적이다. 음성학적, 음운론적, 문자론적 고찰을 통해

12) 그에 따라 ‘Jiang(江, 姜, 蔣)’과 ‘Jhang(張, 章)’이 표기상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된소리 표기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을 변호하고 있다. 그러나 음운적으로 변별되지 않는 한 음소는 굳이 표기로 변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표기의 범람을 막기 위해 된소리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심재기(2008)는 외래어의 개념을 고찰하고 현행 외래어 표기법을 조항별로 해설하면서 통찰력 있는 비평을 하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도 최경봉(2008)과 같이 같은 한자 문화권의 언어인 중국어, 일본어에 대해 원지음 표기를 고집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년 7월 7일 고시)

우리말을 적는 데 가장 적합한 문자는 역시 한글이다. 그러나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이해하는 일도 간혹 필요하기 때문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존재한다. 로마자 표기의 가장 큰 효용은 역시 인명, 지명과 같은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이다. 그러나 나라 간의 교류가 잦아진 요즘에는 한국을 소개하는 외국어에서 ‘한복(hanbok)’ 같은 일반 명사를 쓸 일도 적지 않다. 그런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영어 표기법이 아닌데도 영미 사람들이 읽어서 정확한 발음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게 비판받은 한다. 로마자 표기법은 문자 체계이지 발음 기호가 아니므로 학습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오해는 비교적 심각하여 《새국어생활》에서도 두 번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특집을 마련한 바 있다. 한 번은 2000년 개정 이전에, 한 번은 이후에 기획한 것으로서 외래어 표기법과는 달리 비교적 우호적인 목소리가 우세한 편이다.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새국어생활》 제7권 제2호(1997년 여름호)는 로마자 표기법 개정을 염두에 둔 기본적 고찰이 행해져 있다. 이익섭(1997)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각 나라의 (가상적인) 외래어 표기법에 해당하는데, 그에 맞추어

수백 개를 만들 수는 없으므로 한국어의 특성을 일관되게 체계화한 표기법이면 만족스러운 것이고 각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어 발음을 알리고 할 때에는 한국의 로마자 표기법 정도는 학습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시의 머큐-라이샤워 표기법의 허실을 진단한 글이다. 정희원(1997)은 머큐-라이샤워 표기법(1939), 한글학회 안(1940년), 문교부 안(1948년), 예일 체계(1954년), 문교부 안(1959년), 문교부 안(1964년)을 비교·대조하면서 세 가지 쟁점, 곧 로마자 표기를 우리말의 맞춤법에 따라서 할 것인가 아니면 발음을 따라서 할 것인가의 문제, 로마자 한 글자로 대응시키기 어려운 우리말 모음 /ɪ/, ㅡ, ㅐ /13)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의 문제, 자음 체계에서 파열음과 파찰음의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익섭(1997), 정희원(1997)은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만드는 데 고려하였던 이론적 사항들이 비교적 치밀하게 논의된 글이다. 그 외 국어의 로마자 표기 실태 조사 결과를 제시한 김세중(1997), 중국에서의 로마자 표기 실태를 설명한 허성도(1997), 일본 로마자 표기법의 내용과 역사를 설명한 장인선(1997)이 실려 있어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되었다.

《새국어생활》 제10권 제4호(2000년 겨울호)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고시되고 나서 그에 대한 의의를 살펴본 글들이 실려 있다.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된 그해에 정부 기관에서 펴내는 잡지에 로마자 표기에 대한 냉정한 비판을 실는 것은 정책적인 혼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로마자 표기법 홍보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우호적인 해설 위주의 글을 실고 있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한 김세중(2000), 새 로마자 표기법의 주요 사항을 상세히 해설한 정희원(2000), 종전 로마자 표기법의 이론적·실용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의 단점

13) 엄밀히 말하면 'ɪ, ㅡ, ㅐ'도 로마자 한 글자로는 대응시키기 쉽지 않다. 주된 쟁점만을 소개하느라 일부러 누락한 듯하다.

도 지적한 유만근(2000),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철학을 논하고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의 장점을 설명한 후 그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조한 권재일(2000), 김명식(2000) 등이 실려 있다. 특히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성(姓)에 대해 그 표기를 따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용례집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씨의 표기 시안을 마련한 허철구(2000)는 눈길을 끈다. 실제 로마자 표기가 자주 이루어지면서도 기존의 관례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곳이 성씨의 표기이기 때문이다. 성씨뿐 아니라 기업 이름, 학교 이름 등의 로마자 표기에는 관례와 새 표기법 사이의 충돌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

6. 표준 화법

1992년에 심의 확정된 표준 화법은 친족의 호칭어·지칭어, 경어법, 인사말 등의 표준적 쓰임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서 정식 어문 규정이라기보다는 권고안이다. 따라서 국어 기본법에서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지는 않았다. 일반인들은 표준 화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각종 기관의 국어 시험을 검토해 보면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과 마찬가지로 표준 화법을 준거로 하여 언어 예절 문제를 구성한 경우가 많다. 그것은 국어학자들이 표준 화법을 거의 어문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표준 화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는 그 내용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교육적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친족의 호칭어·지칭어라든가 경어법, 인사말과 같은 언어 예절을 잘 알아서 나쁠 것은 없겠으나 일반인들은 그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 열의가 적은 편이다. 일반 국민들이 어떤 규정에 대해 스스로 학습할 동기가 없다면 그 규정의 생명력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새국어생활》 제13권 제1호(2003년 봄호)에서 표준

화법을 기획 특집으로 삼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였다. ‘오늘날의 언어 현실과 표준 화법의 중요성’(강신향), ‘현행 표준 화법의 미비점’(김세중), ‘표준 화법의 문제와 개선 방안’(전영우), ‘표준 화법의 요건과 보급 방안’(김희진), ‘통신 언어의 표준 화법’(이정복)은 모두 현재의 표준 화법이 시대에 맞지 않음을 인식하고 새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표준 화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풍부한 실례를 통해서 주장한 글들이다.

7. 맺음말

이상으로 《(새)국어생활》에 실린 어문 규범 관련 논문들을 주마간산 격이지만 빠짐없이 언급하였다. 구체적 내용을 소개한 것도 있지만, 지면의 제약 때문에 논의 주제만을 소개한 것도 있었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의 《(새)국어생활》에서는 어문 규범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실릴 것이다. 문장 부호,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 표준 발음법 개정, 표준어 재사정(再査定) 등은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이전 논문들의 내용을 넘어서서 더욱 풍부하고 발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좋은 논문이 많이 실리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신향(2003), 오늘날의 언어 현실과 표준 화법의 중요성, 《새국어생활》 제13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강인선(1996), 현행 일본어 표기법과 나의 의견,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강인선(1997), 일본 로마자 표기법의 어제와 오늘, 《새국어생활》 제7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인터넷 서비

스).

권인한(1993), '표준 발음법'과 '문화어 발음법' 규정, 《새국어생활》 제3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권인한(2000), 표준 발음, 《새국어생활》 제10권 제3호, 국립국어연구원

권재일(2000), 설득, 이해, 실천의 의지, 《새국어생활》 제10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김상준(1996), 외래어와 발음 문제,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김세중(1996),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비판 분석,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김세중(1997), 국어의 로마자 표기 실태, 《새국어생활》 제7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김세중(200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경위, 《새국어생활》 제10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김세중(2003), 현행 표준 화법의 미비점, 《새국어생활》 제13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김슬옹(2008), 외래어 표기법의 된소리 표기 허용에 대한 맥락 잡기, 《새국어생활》 제18권 제4호, 국립국어원

김정수(1989), 한글 풀어쓰기 운동, 《국어생활》 제18호, 국어연구소

김주필(1990), '표준어 모음'의 심의 경위와 해설, 《국어생활》 제22호, 국어연구소

김희진(1990), 표준어 규정 고시 이후의 몇 문제, 《국어생활》 제20호, 국어연구소

김희진(1996), 외래어 표기, 남북한이 어떻게 다른가,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김희진(2003), 표준 화법의 요건과 보급 방안, 《새국어생활》 제13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남광우(1987), **현행 맞춤법의 원리와 문제점**, 《국어생활》 제9호, 국어연구소.

민현식(2001), 《**국어 정서법 연구**》(수정판), 태학사.

박창원(2008), **외래어 표기법의 된소리 표기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제18권 제4호, 국립국어원

송기중(1992), **현대 국어 한자어의 구조**, 《한국어문》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송철의(1993), **자음의 발음**, 《새국어생활》 제3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송철의(1996), **표준어, 표준 발음과 국어 생활의 실제**, 《새국어생활》 제6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시정곤(2002), **명사 연결체의 띄어쓰기 실상과 처리 방향**, 《새국어생활》 제1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신형욱(1996), **외래어 표기법과 나의 의견**,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심재기(2008),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새국어생활》 제18권 제4호, 국립국어원

안병 희(1988), **한글 맞춤법의 역사**, 《국어생활》 제13호, 국어연구소
양명 희(2002), **현행 문장 부호의 사용 실태**, 《새국어생활》 제12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엄익 상(2008), **중국어 외래어 표기법 반성—원칙과 세칙의 문제—**, 《새국어생활》 제18권 제4호, 국립국어원

여규 병(2002), **신문의 띄어쓰기**, 《새국어생활》 제1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유만근(1996), **외국어를 귀화시켜 국어다운 외래어로**,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유만근(2000), **종전 로마자 표기법의 이론과 실용상 문제점**, 《새국어생활》 제10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유목 상(1988), **한글 맞춤법**, 《국어생활》 제13호, 국어연구소

- 이선웅·정희창(2010), 《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제3권), 태학사.
- 이승재(1993), 모음의 발음, 《새국어생활》 제3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 이승재(2002), 옛 문헌의 각종 부호를 찾아서, 《새국어생활》 제12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이은정(1990), 어문 규정 고시 후의 사전 표제어 검토—1989년에 발행된 사전을 대상으로—, 《국어생활》 제20호, 국어연구소.
- 이용택(1988), 표준어 규정, 《국어생활》 제13호, 국어연구소.
- 이익섭(1985),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의 表意性에 대하여, 《국어생활》 제3호, 국어연구소.
- 이익섭(1988), 국어 표준어의 형성과 변천, 《국어생활》 제13호, 국어연구소.
- 이익섭(1992), 《국어 표기법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익섭(1997), 로마자 표기법의 성격, 《새국어생활》 제7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 이익섭(1998), 표준어의 기능, 《국어 사랑은 나라 사랑》, 문학사상사.
- 이익섭(2002), 문장 부호의 중요성과 우리의 현실, 《새국어생활》 제12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이정복(2003), 통신 언어의 표준 화법, 《새국어생활》 제13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 임동훈(1996),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실제,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임동훈(2002), 현행 문장 부호의 미비점과 대안, 《새국어생활》 제12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임흥빈(1993), 국어 억양의 기본 성격과 특징, 《새국어생활》 제3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 임흥빈(1996), 외래어 표기의 역사,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임홍빈(2008), 외래어의 개념과 문제, 《새국어생활》 제18권 제4호, 국립국어원
- 전광현(1989), 국어 자모의 배열 순서에 대하여, 《국어생활》 제18호, 국어연구소
- 전수태(2002), 남북한 문장 부호 비교, 《새국어생활》 제12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전영우(2003), 표준 화법의 문제와 개선 방향, 《새국어생활》 제13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 정희원(1997), 역대 주요 로마자 표기법 비교, 《새국어생활》 제7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 정희원(2000), 새 로마자 표기법의 특징, 《새국어생활》 제10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정희창(2002),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 《새국어생활》 제1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 지민제(1993), 소리의 길이, 《새국어생활》 제3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 최경봉(2008), 언어 관습을 바탕으로 한 규범 정하기—외래어 표기, 특히 한자음 표기 규정과 관련하여—, 《새국어생활》 제18권 제4호, 국립국어원
- 최현배(1949), 《글자의 혁명》, 문교부
- 허성도(1997), 중국의 로마자 표기 실태, 《새국어생활》 제7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 허웅(1988), 맞춤법·표준말과 국어 생활, 《국어생활》 제13호, 국어연구소
- 허철구(2000), 성(姓)의 로마자 표기 방안, 《새국어생활》 제10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허철구(2002), 법률의 띄어쓰기, 《새국어생활》 제1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